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한 기소를
우려하는 한·미·일 학자 공동성명
(한국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의 류석춘 교수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 저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류 교수는 강의 중에 역사적 문제로 단지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3가지 쟁점을 문제 삼아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그를 기소하였습니다.

류 교수는 강의에서 일제 치하에 위안부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매춘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역사는 정치적, 학문적으로 민감한 주제이며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와 동시에 역사를 균형잡힌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류 교수는 30년 동안 이어져 온 위안부 문제에 대한 통념에 대해서 (다양한 증거에 의거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반론을 소개했을 뿐입니다. 그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고, 물론 학생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요할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한국 검찰의 기소가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잣더미에서 부상하여, 현재 역내를 물론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고등교육 시스템 또한 한층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전 세계의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류 교수에 대한 기소가 열린 토론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져야 하는 상아탑에서도 ‘검열의 문화’가 점차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교에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류석춘 교수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오직 편협한 증거(특히 고노담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만 집착하고 있는 검찰의 태도, 그리고 다소 이해하기 힘든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검찰 측이 신청한 주요 증인인 고소인조차 류 교수의 강의 중 발언에 대해 “명확히 허위사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견해와 다르지 않느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 측은 현재까지도 어느 개인 또는 집단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류 교수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한국의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 우려됩니다. 아울러, 류 교수에 향한 대중과 언론의 감당하기 힘든 인신공격으로 인해, 다른 교수들 또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 매우 우려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청원을 통해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추구와 지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나아가 행여 이번 법원 판결이 한국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제한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토론에 대한 근본적인 억압, 그리고 통념과 다른 생각에 대해 드러내는 편협함, 그리고 학자들에 대한 부당한 기소는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을 방해할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솔한 기소로부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한 무고한 지식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가장 본질적인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보호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례를 남겨야 관련 담론의 수준이 한층 더 격상될 것이며 공공의 영역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되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본 성명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영어판이 표준본임을 밝힙니다.]

*** 현재까지 한국 거주 학자 서명인 (여기서 기관 및 직함은 학자 개인의 학술적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이 성명에 대한 기관의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부 서명인들은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 문제 의견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 관점이나 그 증거와 관련 지지 입장도 반대 입장도 아닙니다. 류 교수의 의견은 그의 독자적인 것이며, 일부 서명인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김병준(강남대 교수)
- 김병헌(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 김승욱(중앙대 명예교수)
- 김철홍(장로회신학대 교수)
- 김행범(부산대 교수)
- 민경국(강원대 명예교수)
- 민현식(서울대 명예교수)
- 박기성(성신여대 교수)
- 백화진(경성대 교수)
- 양준모(연세대 교수)
- 유광호(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 이광은(한국외대 교수)
- 이명희(공주대 교수)
- 이삼현(연세대 교수)
- 이성호(중앙대 교수)
- 이영훈(이승만학당 교장)
- 이우연(전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이은혜(순천향대 교수)
- 이제봉(울산대 교수)

이주천(원광대 명예교수)
이철순(부산대 교수)
정안기(전 고려대 연구교수)
정영기(아주대 교수)
조성환(경기대 교수)
주익종(이승만학당 교사)
천세영(충남대 교수)
최인(서강대 교수)
홍승기(인하대 교수)
홍후조(고려대 교수)
황승연(경희대 교수)